

“인정감”

안동 동부국민학교
교사 김훈일

몇년은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어느 매스컴에서 개구장이라도 좋으니 튼튼히만 자라라는 말을 듣고 덜 익은 감을 씹은 것처럼 입맛이 떨어짐 하였다. 인간의 성장과 성숙과정에서 개구장이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지만 다 큰 뒤에도 짓궂은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걱정된다.

수년 전 어느 시골 학교에 근무할 때였다. 우리 학교에 전교에서 유명한 개구장이가 한 학생이 있었다.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학급의 싸움은 맡아놓고 했고 수업시간의 떠들기, 청소시간의 도망치기, 학급 유리창 깨는데 선수, 옆좌의 공책에 낙서하기, 도시락 반찬 훔쳐 먹기등 학교 생활에서 너무나 짓궂게 놀았다. 생활 지도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학부형 상담을 세번이나 하여도 큰 효과가 없었다. 전문 서적을 여러권 읽어보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을 시도하다가 인정감을 갖게 하는 교육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일

학기 말의 7월 어느날로서 학급 어린이회의를 통하여 선거와 지명을 절충시켜 학급의 생활지도부장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는 피선 축하 기념으로 학교에 배달되던 우유를 한달치를 사주었다. 그는 매우 좋아했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며 매일 집에 가져가 동생과 나누어 먹었다. 여름에 6교시를 마치고 집으로 가져가면 우유가 변질되어 먹지못한다고 하여도 말을 듣지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났는데 그날도 집으로 우유를 가져가 먹고는 설사를 만나 이틀간 결석을 했다. 그래서 크게 깨닫고는 차차 담임의 시키는 일에 잘 따르게 되어 이년간 담임하는 동안 점점 모범 어린이가 되었다. 들으니 지금은 명문대학에 다니다가 재학중 입대하여 군대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디 국방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계속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나라의 큰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 생각해도 우유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